제 8 장

율법의 역할과 목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애씀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율법을 준수한 사람입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까? 율법을 어긴 대가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율법을 거울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정말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율법과 명령들을 완전히 지키고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들에 대해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1.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한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왔습니까? 어겨 왔습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가장 큰 명령은 어떤지 살펴봅시다. 이것은 '모든 율법의 제왕'으로서 마태복음 22장 36-38절에 나와 있습니다(신6:5 참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은즉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당신은 이 명령을 완전히 순종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이 만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당신의 생활에서 으뜸가는 자리에 계십니까? 항상 '첫 사랑'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물이나 사람이 당신의 첫 자리에 와 있습니까? 과연 당신은 최고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며 삽니까?

A 자가 진단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중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일단 그 중에 5가지만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진단해 보기 바랍니다.

- 1) 첫 번째 명령(출20:3) 나는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나는 항상 주님을 우선하였다. 나는 결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 2) 두 번째 명령(출20:7) 나는 결코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거나 생각 없이 내뱉지 않았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일컬었다.
- 3) 다섯 번째 명령(출20:12) 나는 항상 내 부모를 공경하고 가장 높이 모셨다. 나는 부모에게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렸을 때에도 매를 맞은 적이 없다.
- 4) 여덟 번째 명령(출20:15)- 나는 결코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 내 것이 아닌 것에 손댄 적은 한 번도 없다.
- 5) 아홉 번째 명령(출20:16) 나는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한 적이 없다. 나는 결코 다른 사람에 대해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한 적이 없다. 나는 결코 거짓말 한 적이 없으며

항상 모든 일에 정직했다. 나는 진실만 말한다.

어떻습니까? 당신은 율법을 어겼습니까? 지켰습니까?

율법에서 몇 개는 지키고 몇 개는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고 기록합니다.

위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합시다. 그는 자신이 어긴 하나의 명령 외에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야고보서 2장 10절은 비록 그가 겨우 하나를 어겼지만 여전히 율법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십대 아들에게 '잔디 깎아라, 세차해라, 담장 칠하고 쓰레기 비워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잔디를 깎고 세차하고 담장을 칠합니다. 그러나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하나 빼고 다 했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아들입니까? 불순종하는 아들입니까?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불순종했습니까?

사람이 단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면 그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여기 사슬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 고리 중 하나가 끊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끊어진 사슬입니다.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음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약 2:11). 그래도 율법은 그를 범법자로 규정합니다.



고무 밴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가위로 그것을 열 토막 냅니다. 고무 밴드는 끊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한 군데만 자릅니다. 이 고무 밴드도 역시 끊어진 고무 밴드입니다.

로프에 몸을 내맡긴 채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로프가 다섯 군데 끊어지면 그 사람은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사람이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까? 로프가 끊어지는 건 한 군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십계명만이라도 완벽히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벽히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도다.

율법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유일한 이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같은 진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90 성경의 파노라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요8:46)

예수님은 완전히 무죄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19절 말씀대로라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B. 율법은 나쁜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진단해 보면 우리 모두가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합니다(롬7:12). 율법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자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율법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보여 줍니다. 문제는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씻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본다고 합시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울이 왜 이래? 내 얼굴이 더럽게 비치잖아!" 그러나 실제로 거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얼굴이 더러울 뿐입니다. 좋은 거울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율법도 죄인에게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롬7:14 -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내게 있다!).

2. 율법을 어긴 대가는 죽음이다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다고 합시다. 분명 거기엔 처벌이 따릅니다. 만일 부모님이 과속으로 걸렸다고 합시다. 분명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십계명이 주어진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기 21장을 보기 바랍니다. 12, 15-17절에는 율법을 어긴 자들이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31절에는 죄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이 세 절에 당신에게 해당되는 죄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32절은 이 같은 죄에는 분명히 형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삯은 사망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즉 죄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율법을 어기면 그 형벌로 죽게 되고 이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어긴 죄인에게는 죽음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율법 파괴자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복의 말씀으로 다시 기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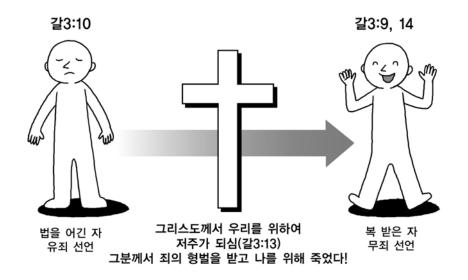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는 자는 다 복 받은 자니라.

이 말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롬 3:23). 복은 사람에게서 떠나고 대신 율법을 어긴 데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이제 소망이 있습니까?

3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죄인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갈3:13).



이 땅에 있는 모든 범법자들 즉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어긴 자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딤전1:15).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당신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믿으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이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롬6:23). 당신은 이 선물을 받았습니까?

4.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젊은 부자 관원(마19:16-22)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했다고합시다(마19:16).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은 대체로 이렇게대답하겠지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요6:47; 요3:16). 그러나 예수님은 젊은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대로라면 영생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앞에 나온 두 가지 답이 모두 맞습니다. 영생을 얻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 1) 하나님의 명령들을 모두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하나님의 율법을 하루 24시간 평생토록 완전하게 지킴으로).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 2)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장 훌륭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형편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 가는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젊은 부자 관원이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언가를 보여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관원은 자신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마19:17-20). 당신은 정말 그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관원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일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으며 또한 자기 자신을 정죄에 넣을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악한 면이그의 좋은 면에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실제 이 청년은 범법한 죄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38절에 따르면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까? 아니면 자기 소유를 더 사랑했습니까(마19:21-22)? 실제로 그는 이 중대한 명령을 어겼습니다.

B. 어떤 율법사(눅10:25-29)

이 율법사 즉 모세 율법의 전문가의 질문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으리이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되물으셨습니다(눅10:26-27). 그러자 율법사는 율법의 가장 큰 명령 즉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도다. 이것을 행하면 네가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 1)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라.
- 2) 이웃을 완전히 사랑하라.

그런데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 일을 완전히 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완벽히 사랑하거나 이웃을 완벽히 사랑하지 못했습 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면 구원자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은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갈2:21). 오직 범법한 죄인만이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는 의로운 자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로운 자가얼마나 있습니까(롬3:10)?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모두는 구원자를 필요로합니다.

5. 율법의 목적

율법의 목적이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 1)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의롭게)하는 것이 아니다.
- 2) 율법의 목적은 사람에게 그의 죄를 보여 주는 것이다(죄에 대해 알게 하는 것) 롬7:7-14.

더러운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얼굴에 묻은 것은 죄와 같고 거울은 율법과 같습니다. 거울의 목적은 그 사람에게 그의 더러움을 보여 줍니다. 얼굴을 씻으려고 거울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울은 다만 세수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율법도 이처럼 죄를 씻어야 할 필요를 보여 줍니다. 율법 자체가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요1:29). 거울이 우리를 세면대로 인도하듯 율법도 우리를 어린양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갈3:24).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죄 씻음 받고 용서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셨습니다(롬8:3). 어린양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94 성경의 파노라마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나 사람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할 수는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씻을 수 없지만 죄를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거울은 얼굴을 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여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6 사랑의 법

마태복음 22장 36-40절에 따르면 모든 율법은 두 가지 간단한 명령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롬13:8-10 참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롬13:10).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지키고 성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범법자가 아니라 준법자입니다.

십계명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출 20:3)?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겠습니까(출20:4-5)? 정말 하나님 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겠습니까(출20:7)?

정말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를 죽이겠습니까(출20:13)? 진정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의 것을 훔치겠습니까(출20:15)? 율법의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한 마디로 요약되고 성취됩니다(갈5:14).

너무나 간단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하지만 사람에게서는 이런 사랑이 결코 나오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신자의 삶속에 들어오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 스스로 사랑을 행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율법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킨 유일한 분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을 보기 바랍니다.

오직 성명의 열매는 <u>사랑</u>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나는 사랑을 만들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님 안에서 걷고 있고(갈5:16)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달려라, 존, 달려! 율법이 명한다!

그러나 내게 발이나 손을 주지 말고 복음이 가져다주는 훨씬 더 위대한 소식을 다오.

그것으로 내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리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당신은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나오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혹은 어떻게 그 일이 불가능합니까?